2018년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버럭 10월호

Contents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볼링교실' 2

자립생활기술교육 '집밥 正선생 요리교실' 4

자립생활기술실천 '발달장애인 힐링캠프' 6

<자립생활주택> 김ㅇㅇ씨 개별ilp 프로그램 8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캠페인 참가 11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영화 '글러브'를 보며..... 13

칼럼. 미국의 장애인권리옹호체계와 한국의 장애인옹호체계제도화 방안 15

이달의 정보 17

이달의 시 18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19

광고 20

발행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행인: 정종남 편집: 편집위원 발행일: 2018년10월31일
홈페이지: http://www.kbcil.co.kr 전화: 908-7776 팩스: 0303-0799-1758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9차 발달장애인자조모임 - '볼링교실'

정진경

볼링 배우는 엄○○씨

10월 17일(수)14:00 ~ 17:00까지 9차 발달 장애인 자조모임의 일환으로 볼링교실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센터에서 간단히 출석체크 후 강북볼링센터로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볼링을 즐기게 되었다.

담당자인 나는 8차 자조모임 볼링교실에 대한 참여자들의 호응과 만족감이 워낙 컸던 만큼 이번 9회 차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해주시리라는 기대감에 기분이 들떠있었다.

최종 참여자를 선정하며 고심한 결과 지난번 볼링교실 참여 시 의욕은 있으나 볼링의 규칙과 에티켓이 약간 아쉬웠던 최○○씨를 볼링에 능숙한 송○○씨와 한 팀으로 구성하여 협동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기로 하였고, 송○○씨가 최○○씨의 속도를 맞추어 볼링을 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담당자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우려와는 달리 송○○씨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씨의 볼링 치는 자세와 규칙을 하나하나 일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강원에서 신규참여자로 함께한 강○○씨와 엄○○씨 경우 스텝으로 함께 참여한 박지훈 사회복지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주자 높은 집중력으로 볼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를 보였다.

경기초반 신○○씨는 볼링핀이 잘 쓰러지지 않자 팔이 아프다며 의욕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어 안타까웠지만, 다행히 함께 동행

송○○씨가 최○○씨에게 볼링을 가르쳐주는 모습

만족도조사지를 작성 중인
엄○○씨와 강○○씨

한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신속히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씨에게 맞는 볼링공으로 바꿔주자 의욕을 되찾아 경기 후반부터는 볼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분들은 신나게 볼링을 친 후 허기가 지시는지 여기저기서 배가 고프다는 말씀들이 터져 나왔고, 우리들은 저녁식사 장소인 중국집으로 이동하였으며, 모두 몸을 많이 움직여서인지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빠르게 주문을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참여자들의 9차 볼링교실에 대한 소감과 느낀 점 등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송○○씨께서는 자신감 있게 볼링을 칠 수 있으며, 연습을 통해 대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자조모임 참여자들에게 응원을 받았다. 또한 강○○씨께서는 볼링 치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며 다음에도 자조모임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울러 엄○○씨께서는 의사표현을 잘 못하셨지만 방긋방긋 웃으시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즐거웠다는 소감을 대신해주셨다.

이번 자조모임을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서로의 협동심을 발휘하며 한 뼘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비록 타인이 볼 때 아직까진 많이 서툴고 어설프더라도 한걸음 한걸음 사회로의 발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시간들 속에 값진 보석으로 다시 다듬어질 참여자들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

9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 볼링교실
단체사진

자립생활기술교육
집밥 正선생 요리교실 진행

김지연

집밥 正선생 시작~!

10월 19일에 5차 자립생활기술교육의 일환인 '집밥 正선생 요리교실'을 진행하였다. 무더위가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지 요리교실을 진행하기에 딱 알맞은 날이었다. 요리교실은 이번이 2회 차로 1회 차 메뉴 보단 좀 더 복잡하지만, 자립을 하며 혼자 지내는 분들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참치샌드위치와 꼬마김밥을 선정하게 되었다. 참여자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감정을 느끼며, 참여자들이 오시기 전, 재료를 손질하며 현장세팅을 하였다. 도착시간이 다가오자 참여자분들이 하나 둘씩 도착하기 시작하였고, 출석체크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으며, '집밥 正선생 요리교실'이 시작되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 레시피를 간단하게 설명하였고, 각자 앞에 놓인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참치샌드위치와 꼬마김밥에 들어갈 채소를 안전 칼로 손질하다보니 당근을 썰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참여자들은 힘겹게 채소들을 다듬으며 서로의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 요리교실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 질 수 있었다.

꼬마 김밥과 참치샌드위치 만들기~

짜잔~ 꼬마 김밥과 참치샌드위치 완성!!

채소 손질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참치샌드위치를 만들었고, 참치샌드위치는 생각보다 간단하여 참여자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었다. 참치와 파프리카, 피클, 옥수수, 마요네즈를 모두 넣고 잘 섞은 후, 식빵 위에 적당량을 펴 발라 자기가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자르면 참치샌드위치가 완성된다. 두 번째 메뉴인 꼬마김밥은 4등분한 김에 밥을 얇게 펴 바른 후, 단무지, 햄, 맛살, 우엉 등의 속 재료를 취향에 맞게 올린 후 돌돌 말아주면 완성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김밥을 처음 만들어 봐서 잘 할지 모르겠다며 자신 없는 모습을 내비쳤지만 막상 만들기 시작하니 다들 열중해서 만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하지만 손이 불편한 참여자들이 있다 보니 작은 김에 밥을 너무 많이 넣거나 속 재료를 많이 넣으면 잘 말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편의에 따라 큰 김밥을 만들 사람은 큰 김밥을 만들고 꼬마 김밥을 만들 사람은 꼬마김밥을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김밥을 보며 정말 잘 만든다며 칭찬을 하였고, 서로가 만든 김밥을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요리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웃으며 요리를 만드는 참여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모든 요리를 완성한 후, 다 같이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고, 본인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맛에 대한 평가와 요리교실 참여 후기를 나누었다. 다들 요리교실이 너무 재밌었고 만든 음식도 정말 맛있다며,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다음엔 더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를 선정하여 참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집밥 正선생 요리교실 단체사진

7차 자립생활기술실천 발달장애인 힐링캠프

주영경

남이섬으로 출발~~~!!

2018년 10월 25일(목) ~ 26일(금) 1박 2일 발달장애인 힐링캠프를 진행하였다. 이번 힐링캠프 진행 장소는 바로바로 남이섬!!! 한창 단풍축제로 북적거릴 남이섬이지만 다 같이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남이섬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가평역 주변 맛 집에서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하고, 팀을 나눠 마트장보기를 진행하였고,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바비큐 파티에 필요한 식재료부터 간식까지~~~ 구매하는 시간을 가져 참여자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었다.

참여자분들과 장을 본 뒤, 예약해 둔 펜션으로 이동하여 잽싸게 짐을 풀어두었다.

"와!!! 여기 숙소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네요?"

참여자들 대부분 복층 펜션을 처음 접하여 매우 흥미로워했으며, 감탄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남이섬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순간 당황하긴 했지만, 우리는 짝꿍을 정해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어 이동을 했다.

남이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10분가량 배를 타고 들어간다. 배를 처음 타본 참여자들이 더 많았기에

다함께 찰칵!!

이 또한 색다른 추억이 되었을 듯싶다.

바비큐 파티파티~!!!!

"오래 걸어서 다리가 아팠어요."
"예전에도 와봤는데 이번이 훨씬 더 재밌어요!"

참여자들 개개인마다 다른 의견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바비큐 파티 시간!!! 팀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준비를 해보았다.

"저는 상추와 깻잎을 씻을게요!"
"그럼 저는 소떡소떡 꼬치 만들기를 도울게요."

유명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남이섬은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매우 많았다. 알록달록 예쁘게 단풍이 든 나무와 주변을 눈으로 담으며 즐거운 관람을 했다.

단체사진도 찍고 아기자기한 기념품도 구경하다보니 해가 금새 저물어 가고 있었다. 후다닥 숙소로 복귀 후, 잠깐의 휴식시간을 만끽했다.

"남이섬 어땠어요~?"
"단풍이 너무 예뻤어요."

발달장애인 힐링캠프 '쉼터' 단체사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추운날씨였지만 고기와 소시지, 따듯한 찌개를 함께 나눠먹으니 마냥 즐겁기만 했으며,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참여자도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즐거웠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업담당자로서 다음 힐링캠프 진행 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계획하여 참여자분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자립생활주택 여가 · 문화체험 >

입주자 김00씨 개별ILP - 과천 서울 대공원 동물원 관람

김다희

동물원 가는 길 호숫가에서

10월 16일 가을 날씨가 맑은 날 입주자 김○○씨의 개별ILP 일환으로 과천서울대공원 동물원을 방문하였다. 과천서울대공원은 올해 초부터 입주자 김○○씨가 꼭 가고 싶다고 하셨던 곳이 여기여서인지 새로 구매하신 새 옷도 입으시고, 선글라스도 멋있게 쓰시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다.

전 날 장애인 콜택시를 10시에 예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콜택시가 30분 늦게 오는 바람에 출발 시각이 지연되었다. 출발이 예상했던 시간에서 30분 정도 늦게 되니 자연스레 도착시간도 1시간 정도 늦게 되었으며, 입주자 김○○씨는 조급한 마음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얼른 동물원에 들어가자 하시며 초조한 모습을 보이셨다.

동물원으로 가는 길에 스키장에서 볼 수 있는 리프트가 호숫가 위로 지나다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나도 저런 거 타보고 싶다', '나 예전에 고아원에 있을 때 저런 거 타봤어' 라고 말씀하셨고 회상에 젖으시는 모습도 보이셨다.

드디어! 동물원에 입성!!

동물원 입구

동물원 관람 모습(악어)

동물원에 들어 온 입주자 김○○씨는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시고 얼굴에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이셨다. 양 갈래로 나누어진 길 앞에 선 저와 활동보조사 선생님은 '○○ 선생님, 선생님께서 끌리는 길로 가보세요. 저희는 따라갈게요.' 라고 말씀 드리기가 무섭게 '나는 왼쪽이 더 끌려,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 라며 앞장서서 왼쪽 길로 향하셨다.

사자, 호랑이, 기린, 원숭이, 뱀, 악어 등 등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악어를 구경하실 때에 머리를 내미시며 가까이서 보시려고 하시는 행동에 경계선 가까이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여드리기도 하였다.

동물원이 워낙에 넓어 모든 곳을 다 둘러보지는 못하였지만 동물들을 구경하시면서 '원숭이다 원숭이', ' 저거 호랑이야? 사자야 ?' 등의 호기심과 신나하시는 감정 표현 등을 보여주셨으며, 많은 동물을 본 경험이 없으신 탓에 호랑이와 사자, 원숭이와 침팬지 등 동물들의 이름을 헷갈려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대공원 동물원 방문이 큰 소원이었던 만큼 개별ILP를 통해 다녀올 수 있었던 것에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동물원 관람을 마치고 주택으로 귀가하는 콜택시 안에서 '오늘 동물원 방문하신 건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에 김○○씨는 쑥스러워하시며 '좋았어.', '멋있었어.'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표현은 입주자 김○○씨의 성향으로 봤을 때 최고의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동물원 관람 모습(조류)

근장생존권보장연대 캠페인에 참여하며...

박지훈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거리행진 준비과정 모습

지난 10월 10일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에 진행한 shouting on the bed(침대에서 부르짖는 절박한 외침) 캠페인에 참여 하였다.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는 활동지원사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포함을 목표로 강압적인 휴게시간 실시와 활동지원사의 무급노동을 강요하는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무효화하고 고위험성희귀난치근육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대이다.

근장생존권보장연대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덕수궁 대한문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고 사랑채에 도착하여 근육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표출하며 현 시점에서 잘못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캠페인 당일이었던 10월 10일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근육장애인분들과 활동지원사 분들은 바쁘게 행진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 우리도 집결장소에 도착한 뒤 근장연에서 준비해 주신 점심을 먹은 뒤 행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행진시간이 다가오자 근육장애인분들과 활동지원사 분들께서 행진대열을 만들며 덕수궁 대한문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을 시작하였다. 우리 강북센터 멤버들도 행진대열에 참여하였고 나는 피켓을 옷에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거리행진 모습

붙이고 행진을 시작하였다.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거리행진 청화대 사랑채 앞

행진이 시작되자 경찰들이 횡단보도와 차도를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시위대는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행진하며 점점 청와대 사랑채와 가까워졌지만, 추운날씨와 침대위에서 계속 같은 자세로 누워있어야 하는 근육장애인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여 10분마다 정지하여 쉬는 시간을 가졌다. 시위대는 청와대 사랑채에 도착예정 시간이었던 3시를 훌쩍 넘긴 4시 10분에 도착하였다.

청와대 사랑채에 도착하여도 바로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들어 갈 수 없었고, 먼저 도착한 시위대가 있어 기다려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근육장애인분들의 인공호흡기마저 배터리가 떨어져 충전을 하지 않으면 근육장애인분들의 생명에도 위험이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다행히도 주변에 인공호흡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충전하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근장연 시위대도 청와대 분수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청와대 분수대로 도착한 근장연 시위대는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최중증 근육장애인활동지원 차등수가제 시행, 24시간 확대 보장, 활동지원 특례업종 재지정 통해 휴게시간 중단 등이 담긴 생존권 대책 정책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였고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도 함께 요청하였다.

침대위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근육장애인 분들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영화 '글러브'를 보며.....

이선자

영화 '글러브'는 국내 최초 청각장애 야구부 충주성심학교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충주성심학교 야구부는 2002년 대한민국에서 53번째로 정식 등록 된 고교야구팀으로 청각장애인이지만, 야구로 인해 세상과 소통하며 사회를 향한 돌파구를 찾아가는 아이들의 꿈이 있는 야구팀이다.

영화 '글러브'는 천재투수이지만 이미지 쇄신 중인 임시코치 김상남과 충주성심학교 야구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는 음악선생님, 야구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자립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교감선생님, 그리고 김상남의 친구 정철수와 전국 중학야구 최고 유망주였지만 돌발성 난청으로 청력을 잃고 야구를 그만둔 성심학교 야구부의 유일한 투수 명재와 공이 무섭지만 야구가 재밌는 유격수 진만, 주장이자 유일한 포수 대근을 주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 '글러브'는 청각장애인 야구부를 소재로 만들었지만 감동만을 강요하지 않고, 영화 초반부에는 코미디 영화만큼이나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며, 가슴 먹먹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영화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듬어 안으려는 사람들과 자식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모습 등을 담을 뿐만 아니라, 야구부 아이들의 실생활에 반영된 응어리진 울분을 카메라 앵글을 통해 잘 담는다.

성심학교 야구부와 다른 학교랑 경기를 하는 장면을 보며 저들이 비장애인 팀을 상

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이겼으면 하는 바람을 느꼈고, 내가 보치아 생활체육대회에 처음 나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때의 나 역시 무척이나 떨렸으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경기를 잘 할 수 없었다. 다시 한 번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라는 생각이 들며 꼭 운동경기가 아니라도 실생활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위축되지 말고 생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영화 '글러브' 를 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상태는 도저히 이기기 힘든 상대가 아니다. 바로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눈이다. 그런 눈은 짓밟고 일어설 힘조차 무너뜨린다.' 라는 대사가 마음에 확 닿았다. 나 역시 장애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며 타인이 보내는 시선 때문에 상처 입는 순간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을 알지만, 내가 상처 입은 만큼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동료상담가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자료출처-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73477
https://jbm993.blog.me/20120502462
https://blog.naver.com/embla58124/221025365675

미국의 장애인권리옹호체계와 한국의 장애인옹호체계제도화 방안

문지수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애인권리옹호체계 시스템(Protection and Advocacy 줄임말: P&A)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권리옹호체계(Protection and Advocacy 줄임말: P&A) 시스템이란'보호와 옹호'를 뜻하며 장애인권리옹호체계 시스템을 말한다. P&A에는 8개의 단독 프로그램이 있는데, 언제 그것들이 만들어졌는가에 기초하여 연대순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① PADD(Protection and Advocacy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옹호),
② CAC(Client Assistance Program, 클라이언트 원조 프로그램)
③ PAIMI(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iness,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옹호),
④ PAIR(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 Rights, 개인의 권리를 위한 보호·옹호),
⑤ PAAP(Protection and Advocacy for Assistive Technology, 보조 기술을 위한 보호·옹호),
⑥ PABSS(Protection and Advocacy for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수급 자를 위한 보호·옹호),
⑦ PATBI(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Traumatic Brain Injury, 외상성 뇌 손 상을 입은 사람을 보호·옹호),
⑧ PAVA(Protection and Advocacy for Voting Accessibility, 투표 접근성을 위한 보호·옹호) 이며 대부분의 P&A 업무는 이들 프로그램 하에서 시작되었다.

P&A 기관들은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는 이것을 하도록 P&A 기관들에게 독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전통적인 법무법인들의 권한과 책임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1) 일반적인 법적 권한- P&A 기관들은 장애인의 학대, 방임, 또는 권리의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P&A는 학대나 방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P&A 기관들은 또한 장애인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의 집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

여 장애인을 대신하여 법적, 행정적, 기타 적절한 구제책을 수행하도록 위임 받는다.

⑵ 접근권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P&A 시스템의 초기와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중심적인 사명은 장애인, 특별히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학대나 방임을 예방하는 것이다. P&A 기관들의 권한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PADD와 PAIMI법령들은 P&A 기관들에게 장애인들의 기록(치료, 퇴소계획/학대·방임 사건과 관련된) 및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임상적 또는 기타 돌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접근권을 부여하였다.

⑶ 원고적격- P&A 기관들은 고용, 교육, 의료, 교통, 주거, 기타 서비스들에 의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래의 권리로, 장애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즉, 지정된 원고의 일을 맡을 원고적격(standing)이 있다. P&A의 이 원고적격은 시설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법적절차를 시작할 경우에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후견인이 협조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때때로 소송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며, 법원은 장애인들의 법률상·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P&A 기관들의 특별한 법정권한 때문에 이 기관들이 장애인들의 이익의 대표자로서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그 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정해 왔고, 기관의 이사회와 자문회의가 부분적으로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원으로 구성되어야하고 장애계가 그 기관의 서비스 우선수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P&A 법률이 요구한다면, 상기한 원고저격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법원은 P&A 기관들이 시스템이 각 주에서 장애인이 "그들의 공동의 관점을 표현하고 그들의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⑷ 책임기제- 의회는 P&A 시스템이 지역 장애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보장하는 많은 특징을 그 시스템에 짜 넣었다. 예를 들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한 국부적인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P&A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소비자 관여가 요구된다. P&A의 이사회는 P&A의 원조를 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광범위하게 대표하고 그 욕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한다. PAIMI 프로그램은 기관의 자문회의의 적어도 60%가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가족원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P&A 기관들은 또한 현재와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양질의 옹호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내부의 고충처리 수단을 가져야한다.

⑸ 각 P&A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장애계의 가장 주대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P&A 법령들은 각 P&A가 소비자로부터 투입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사용하여 매년 우선순위를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은 각 P&A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독특한 욕구에 부응하는 성과물을 선택하게끔 한다. 소비자 위주의 우선순위와 반응적인 우선순위는 장애인을 위한 P&A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P&A가 지역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만든다.

위의 권한과 책임 이외에도 P&A 기관들은 정보제공 및 의뢰, 서비스 공급자, 지역 의회 의원, 기타 정책 입안자 등에게 기술 자원의 제공, 자기옹호 훈련실시, 대중의 인식의 제고 등과 같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른 폭넓은 노력에 관여한다. 이렇게 P&A 기관들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P&A 옹호서비스는 개발적·전문적·체계적 옹호를 통하여 성취되는 자기결정, 동등한 접근 등료지원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서비스는 장애인의 지도력·독립·생산성·통합을 극대화하고자 의도된 방법으로 전단된다.

위에서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권리옹호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장애인권익옹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2018년 8월 30일에 한국장애인연맹에서 주최하여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권익옹호법(안)의 방향성을 위한 토론회' 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관련 범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인권단체 등 다수 단체의 연합인 '장애인기본법제정연대회의' 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을 '장애인기본법', '장애인자립지원법', '장애인권리옹호법' 으로 분리하여 입법하기 위해 기본법 관련 5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장애인권익옹호법(안)의 방향성을 위한 토론회' 에서는 장애인권리옹호법, 장애인학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분야만 인권규정이 후진적이라고 내용이라고 임재현 교수가 발표하였다.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인권 침해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법제정과 권리옹호일원화가 시급하다고도 말하였으며, 인권침해 대응절차 일원화·인권침해 사례 발굴 강화·피해자 구제 서비스 강화와 신고의무자 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와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관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해장애인 중심으로 제도화해야 하고, 한국형 P&A(장애인권리옹호체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장애인권리옹호체계 시스템은 목적은 평등권의 실현이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띠고 있으며, 장애인권리옹호체계 시스템은 손쉬운 접근권이 확보와 법률적 권한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권리옹호체계 시스템을 왜 만들어야하는가와 만든다면, 권리옹호체계의 법률은 어느 법률에 둘 것인지를 생각하고,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공공기관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2018년 장애인권익옹호법(안)의 방향성을 위한 토론회' https://blog.naver.com/handicapinews/221355872055
- 2014년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 P&A 시스템 방안 연구 - 장애인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본 글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달의 정보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정부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이란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인 중에서 발의변형 또는 다리의 길이차이로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의 보행 교정을 위하여 본인의 발에 맞도록 제작하여 신는 신발을 맞춤형 교정용신발이라 합니다.

■ 구입 지원 절차

1. 본인의 의료급여종류(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와 장애종류(뇌병변, 지체장애, 기타중복 장애)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으로 수급자용 처방전 또는 건보자용 처방전을 잘 구분하여 지참하시고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3. 발급받은 해당 처방전을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바로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4.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에서 맞춤형교정용신발 보장구 적격 통지문이 나오면 본 ㈜에르코스 사업장으로 연락을 주시면 서울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본사업장에서 직접 댁으로 방문을 하여 내발정보서식지와 NOVOTRITT(풋폼)에 발모양을 찍고 걸음걸이 동영상을 10초에서 20초가량을 촬영하고 발모양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해당 병원에서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서 바로 본 사업장으로 연락을 주시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절차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5. 10일에서 15일후에 맞춤형교정용신발이 제작되어져 나오면 맞춤형교정용신발과 의료급여 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같이 본인에게 드리면 처음에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을 발급받은 해당 병원으로 맞춤형교정용신발은 착용하시고 의료급여 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맞춤형교정용신발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6. 해당 병원에서 받은 맞춤형교정용신발 검수확인서와 본 사업장에서 보내드린 의료급여 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 구입 지원 금액

1. 기초수급 장애인 : 250,000원 전액 지원하여 드립니다.
2. 건보가입 장애인 : 225,000원 지원 25,000원 자부담하셔야합니다.

■ 처방전 기재 내용

1. 상기인은 우측 또는 좌측 족부변형으로 상기 보장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상기인은 우측 또는 좌측 하지의 단축으로 상기 보장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구입 가능 장애유형 및 등급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로 보행 장애를 격고 계신 장애인이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처방전 발급을 위하여 해당 병원에 가시기전에 본인이 하반신 장애로 복지카드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가세요!

■ 구입 문의 처

1. 제작업체 : ㈜에르코스 www.ercohs.kr
2.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2 창미빌딩 306호
3. 전 화 : 1661-5839 / 070-7620-5839 / 010-6832-1502
4. 팩 스 : 070-7550-8362

자료출처: http://www.gangbukrc.or.kr/site/gangbukrc/diy/diy_subpage.html?aseq=5

장애여성 몸에 맞게 무료 옷 수선 및 리폼 서비스

○ 대 상 : 서울시에 사는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남성도 가능합니다!★
- 한 가정 당 5건 무료 수선 가능, 무료 택배 서비스 실시
- 바지, 치마, 지퍼수선, 상의, 하의, 모든 옷 수선 및 리폼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parancenter1@naver.com, 또는 Fax : 02-6919-1511
또는 직접 센터 내방하여 작성 가능

○ 참가신청서 : 아래 링크로 들어가 설문지 작성 후 '제출' 누르기
https://docs.google.com/forms/d/1TpnOOtKMz5m3RI4jMiYvJ2EFEuIRLYdMJz67uIzqV7A/edit참가신청서는 파란센터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paranparan) 내 '공지사항' 에서도 확인 가능

○ 수선 장소 : 파란센터 수선실

○ 문 의 : 02-2138-8898

○ 오시는 길 :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32길 61, 현대프라자 208호

★원하는 수선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 가능하면 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http://www.gangbukrc.or.kr/site/gangbukrc/diy/diy_subpage.html?aseq=5

마음에 새겨두면 좋은 글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모두 지우는 게 좋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는 일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 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행복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

- 마음에 새겨두면 좋은 글 中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 납 업 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 납 목 적	회원회비	
대 표 자	정종남	사업자등록번호	210-82-68864	
주 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신청정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	연락처	
	납부금액	□ 고정금액 (원) □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매월 25 일 *미납시 일, 일 재출금
금융거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활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 수집 및의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등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을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에프엠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등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을 [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의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18년 10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숙이 김용자 김은순 김재환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윤두선 이동현 이상훈
이영훈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주영경 최미경 최윤숙
최전균 허효숙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